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999, Vol. 8, 3-4

Editorial Comment : 노인의 기준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노화과정의 연구나 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그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노인의 기준을 약간씩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또 기준을 설정했더라도 조사대상자마다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다음의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생물학적 기준이 있다. 이는 신체적 노화의 정도를 토대로 노인에 해당되는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의 수가 어느 정도 줄었는가, 백발이 무성한 편인가, 피부의 주름살은 어느 정도인가, 신체의 장기는 얼마나 건강한가 등에 따라서 노인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지만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개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둘째는 심리학적 기준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과거 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어느 정도 다른가에 따라서 노인의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문명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심한 편인가,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이나 동기가 줄어들었는가, 인지기능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쇠퇴했는가 등을 토대로 노인의 여부가 결정된다. 역시 심리학적 기준도 생물학적 기준처럼 개인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셋째는 사회학적 기준이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참여나 역할에서

의 변화를 토대로 노인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퇴직을 했거나 자녀가 출가한 후 조부모가 되었다면 역할이 달라지는데, 이 기준도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넷째, 상기의 세 가지 기준들을 토대로 노인의 범주를 정할 때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을 근거로 한 연대기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물론 국제연합에서도 연대기적 기준에 따라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았는가? 여기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19C 후반 프러시아의 사회보장제도 실시와 관계된다. 마르크스(Karl Marx)가 제기한 사회주의 이론에 동조하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제도권에서는 위협을 느끼었다.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1878년 사회주의자들을 진압하려는 법령을 만들었지만, 민중들에게는 채찍과 함께 당근이 필요했다. 결국 그는 1881년 바로 노후 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제의하였고, 1883년부터는 65세 이상이 되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65세라는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65세가 지난 노인들도 나이에 따라서 특성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노인들을 연구할 때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55세에서 84세까지의 노인들을 3집단으로 나눌 경우 55-64세를 young-old 집단, 65-74세를 middle-old 집단, 75-84세를 old-old 집단으로, 또 75세 이상을 비교할 때 old-old 집단 이외에 85세 이상을 very old 집단, 또 평균수명을 훨씬 지나서까지 장수한 노인들을 oldest-old 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금세기 중반 이후 범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의 후반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1992년에는 국제연합에서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결정하기도 했다. 아마도 21세기에는 노인의 기준이 65세가 아닌 70세 또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